

국내 M&A시장의 현황 및 특징

최 순 영
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재무학회 추계 정책심포지엄

2016.1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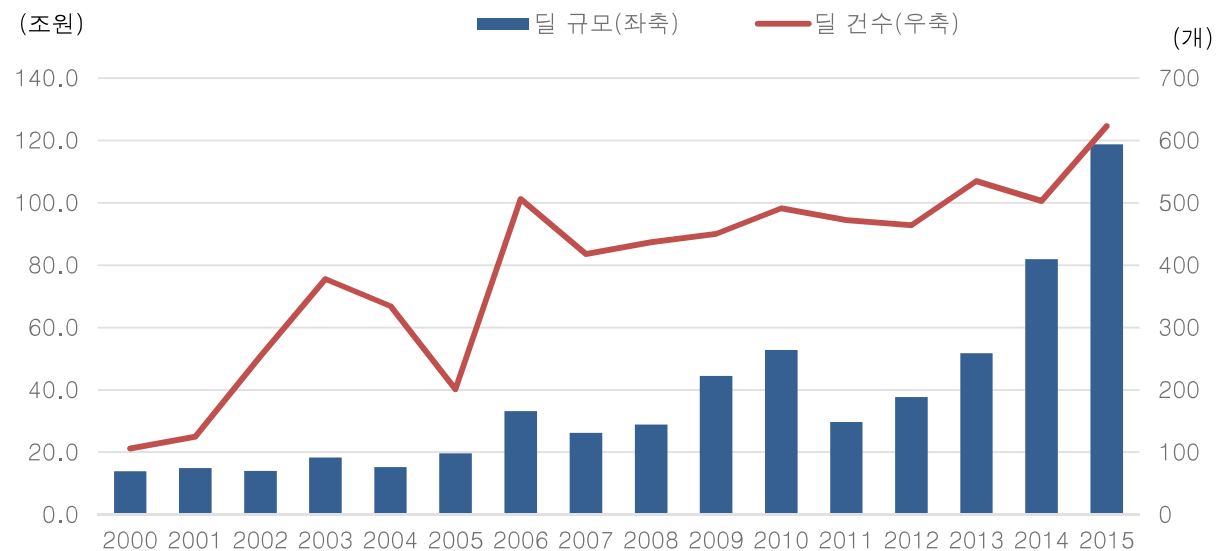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국내 M&A시장 규모

❖ 최근 국내 M&A시장은 빠르게 성장, 2015년 기준 거래건수는 623개, 거래규모는 118.8조원

- 거래건수: 106개(2000년) → 623개(2015년), 5.9배 증가
- 거래규모: 13.9조원(2000년) → 118.8조원(2015년), 8.5배 증가

국내 M&A시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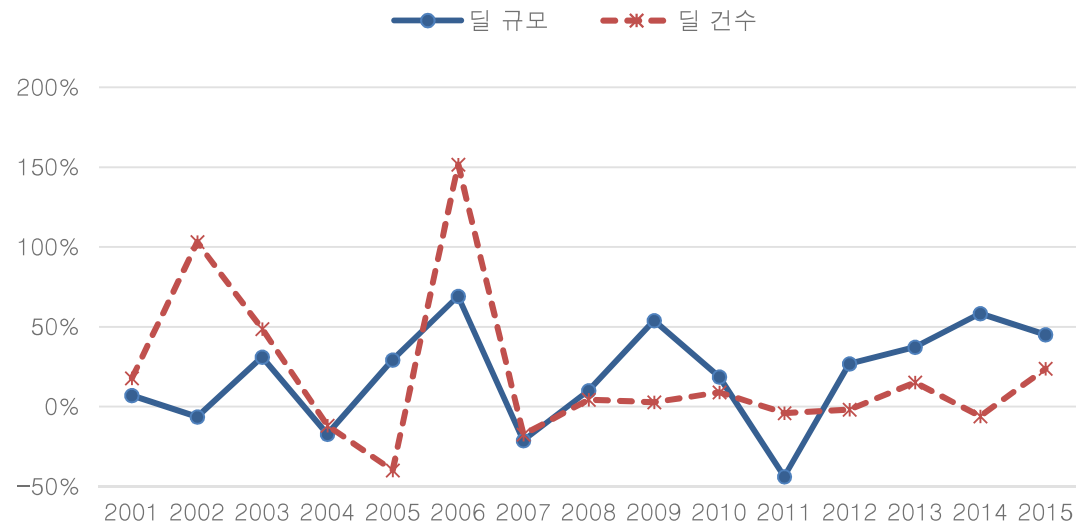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국내 M&A시장 성장세

- ❖ 최근 거래건수보다 거래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이는 2014~2015년 대기업 사업·지배구조 재편을 위한 메가-딜(Mega-Deal)에 기인
 - 거래건수 성장률(CAGR): 12.5%(2000~2015년), 7.9%(2013~2015년)
 - 거래규모 성장률(CAGR): 15.4%(2000~2015년), 51.6%(2013~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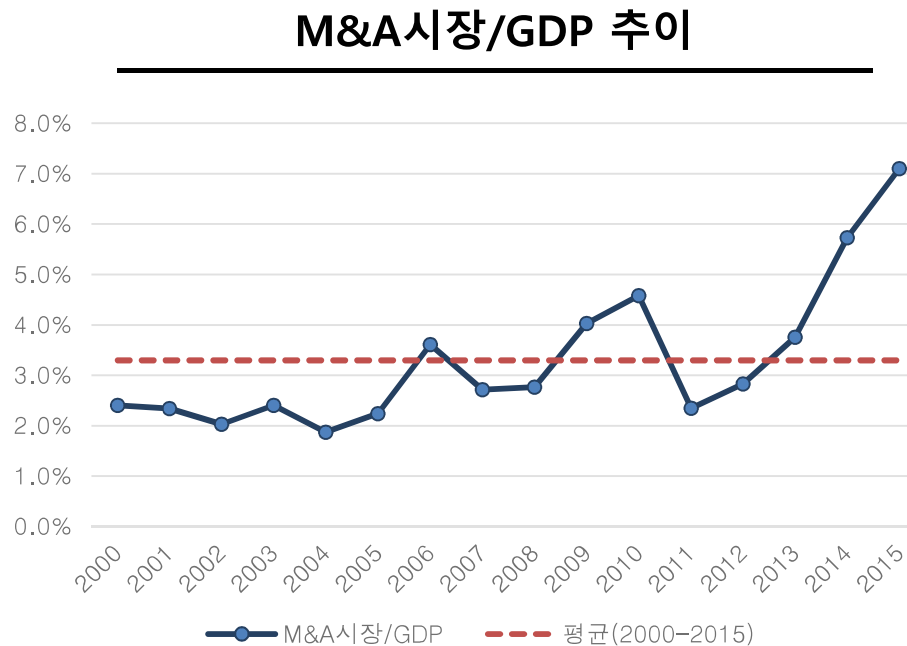
국내 M&A시장 성장율(YoY) 추이



자료: Bloomberg

국내 M&A시장/GDP

- ❖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M&A시장의 작은 규모가 지적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가파르게 증가 2015년 M&A시장 규모는 GDP의 7.1% 수준
 - M&A시장/GDP: 2.4%(2000년) → 7.1%(2015년)
 - M&A시장/GDP 평균: 3.4%(200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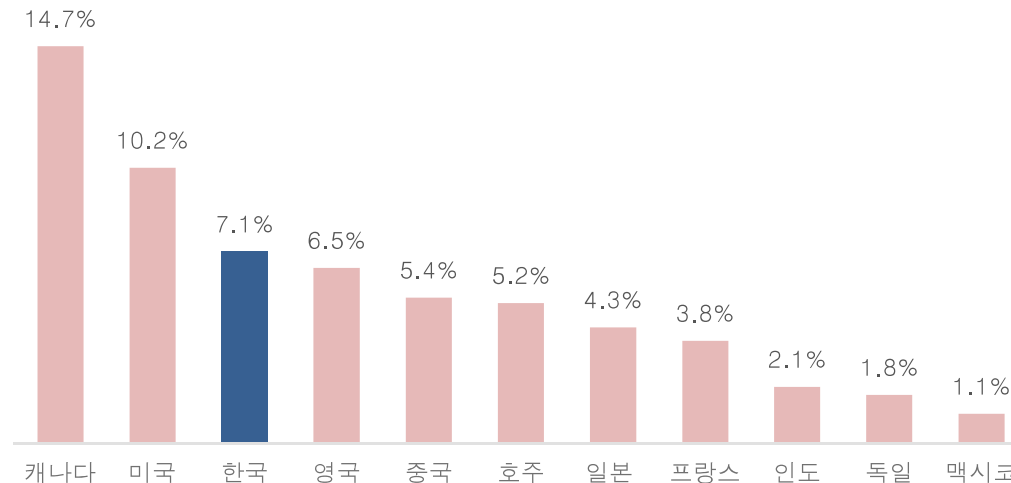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국내 M&A시장/GDP

- ❖ 2015년 국내 M&A시장/GDP는 주요국에 버금가는 수준,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지는 불명확
 - 2015년 국내 M&A시장 규모는 역대 최고치, 다소 예외적인 측면이 있음
 - 그러나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 성숙단계 도달 국내 기업이 늘어나면서 M&A시장의 성장 모멘텀이 일정 수준 유지될 전망

주요국 M&A시장/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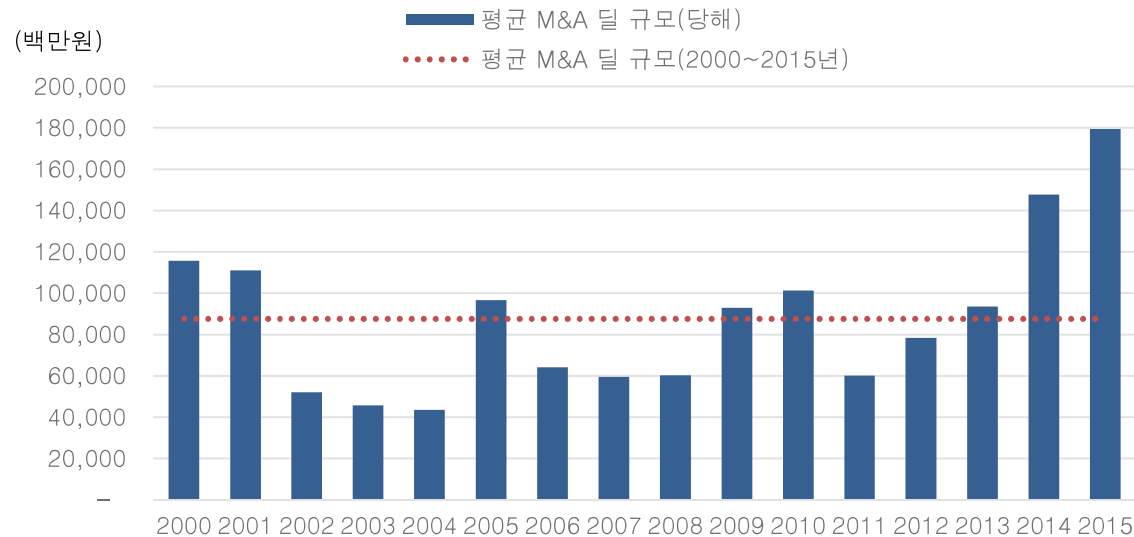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A 딜 평균 규모

❖ 여전히 M&A 딜의 평균 규모는 낮은 수준, 일부 메가-딜(Mega-deal)에 힘입어 최근 평균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 2000~2015년 M&A 딜의 평균 규모는 U-자형 모습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 여파로 대형 M&A 성사, 2014~2015년 SK, 삼성 등 대기업 사업지배구조 재편 메가-딜)
- 평균 딜 규모는 여전히 낮은 수준: 1,157억원(2000년) → 1,795억원(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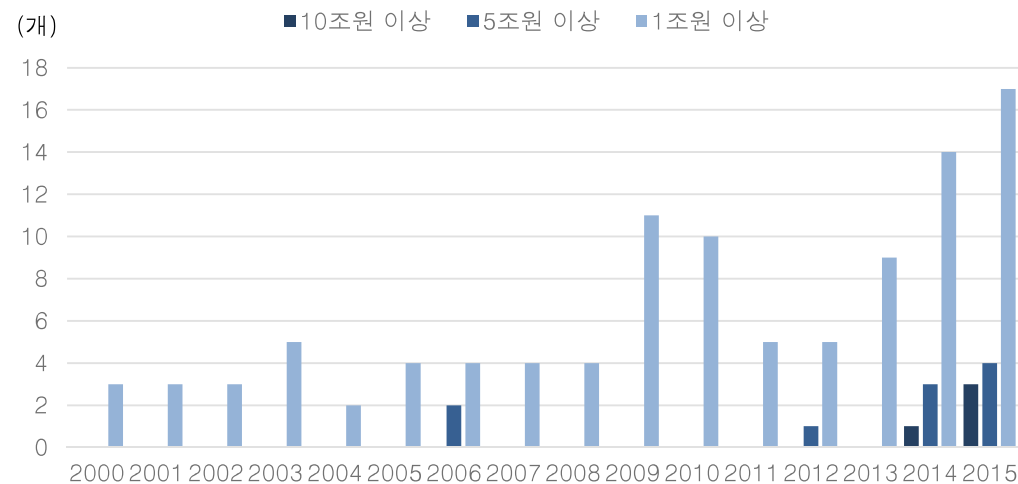
M&A 딜 평균 규모 추이



메가-딜(Mega-deal)

- ❖ **한국판 메가-딜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 간 10조원 이상 메가-딜도 출현**
 - 메가-딜은 업계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딜, 글로벌 M&A시장에서는 100~200억달러(12~24조원)가 보편적 정의
 - 국내 산업·기업의 규모를 감안할 경우 국내 메가-딜은 2.5~5조원 수준이 적합한 정의
 - Forbes 500 국내 기업(67개) vs. 전체 500대 평균: 21.1%(자산규모), 18.9%(시가총액)

한국 메가-딜(Mega Deal)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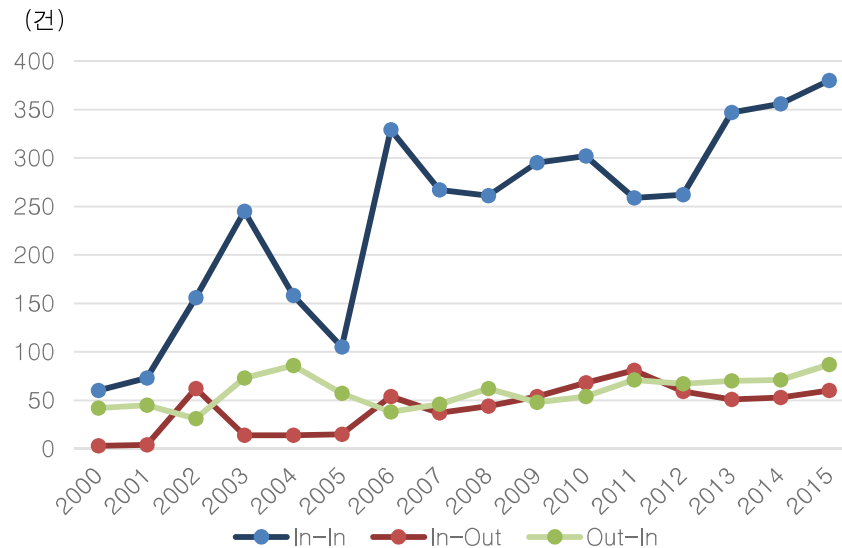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국경간 M&A

❖ 국경간 M&A의 거래건수는 In-Out 및 Out-In 모두 유사하게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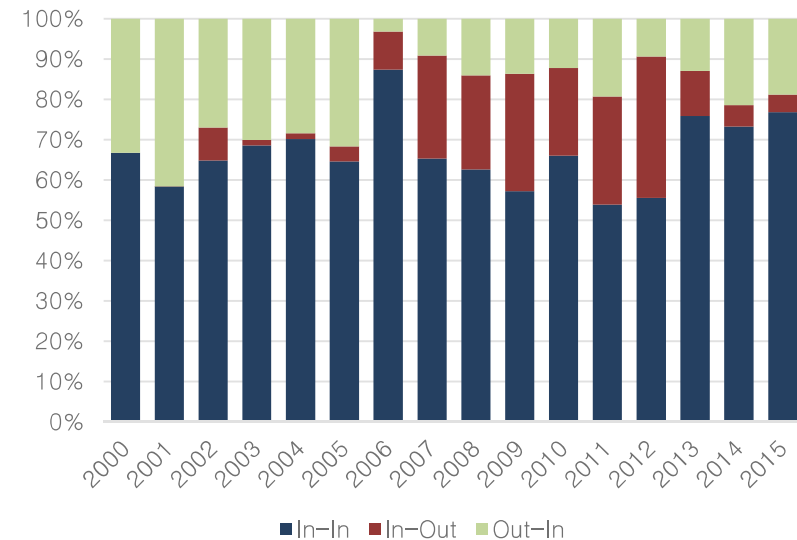
- In-Out: 3건(2000년) → 60건(2015년), 전체 거래건수 11.4%(2015년)
- Out-In: 45건(2000년) → 87건(2015년), 전체 거래건수 16.5%(2015년)
 - 외환위기로 2000년대 초반 외국계기업의 국내기업 인수가 활발

국경간 M&A 거래건수 추이



자료: Bloomberg

국경간 M&A 거래건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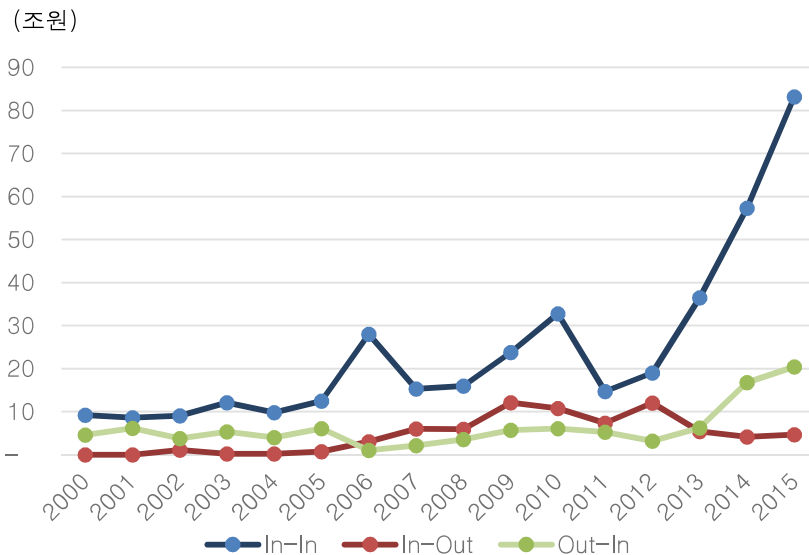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국경간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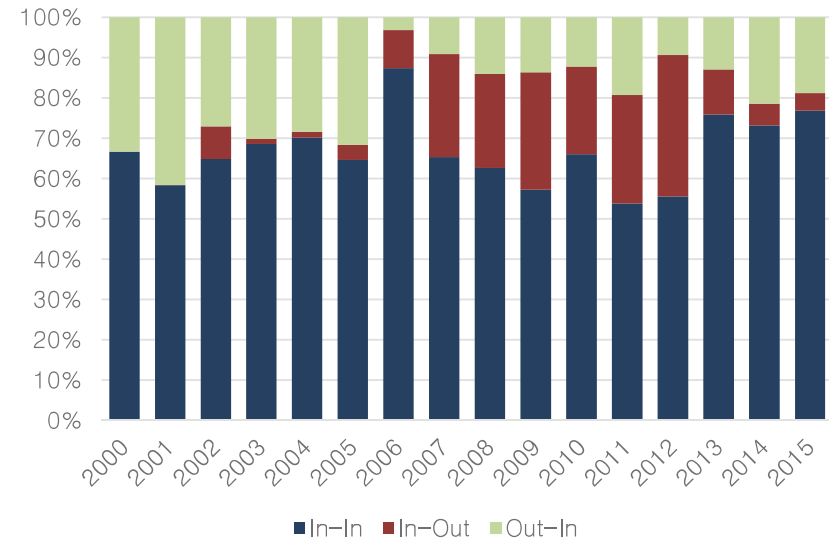
- ❖ In-Out 딜의 거래규모는 2014~2015년 급격하게 감소, 국내 전체 M&A시장 비중은 2015년 기준 4.3%에 불과
 - In-Out 딜의 경우 거래건수에 비해 거래규모가 급감, 전체시장 비중 4.3%(2015년)
 - Out-In 딜 거래규모는 2014~2015년 급격히 증가, 전체시장 비중 18.8%(2015년)

국경간 M&A 거래규모 추이



자료: Bloomberg

국경간 M&A 거래규모 비중



자료: Bloomberg

국경간 M&A

- ❖ 최근 국내 기업의 대형 해외기업 M&A 추진 여력이 감소, 우선적으로 국내에서의 사업 구조조정에 집중하는 모습
 - 국내 기업은 해외기업의 M&A에 앞서 국내에서의 M&A를 비롯한 사업 재편·구조조정이 우선순위

국경간 M&A 딜 평균 규모

year	In-In	In-Out	Out-In
2000	1,541	0	1,100
2001	1,180	18	1,364
2002	579	183	1,215
2003	495	166	729
2004	623	142	464
2005	1,190	483	1,075
2006	850	561	270
2007	574	1,617	464
2008	615	1,353	580
2009	807	2,238	1,185
2010	1,085	1,582	1,124
2011	569	904	743
2012	725	2,027	477
2013	1,052	1,056	892
2014	1,611	789	2,360
2015	2,189	782	2,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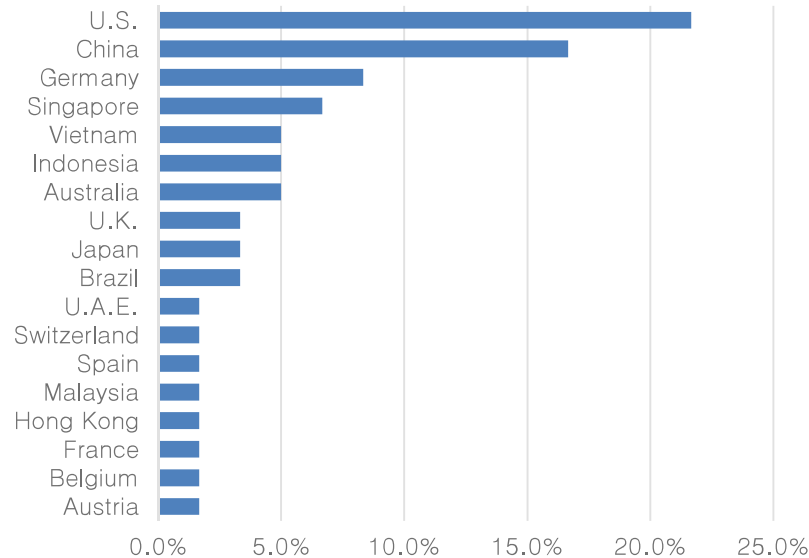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국경간 M&A

❖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M&A는 미국 및 중국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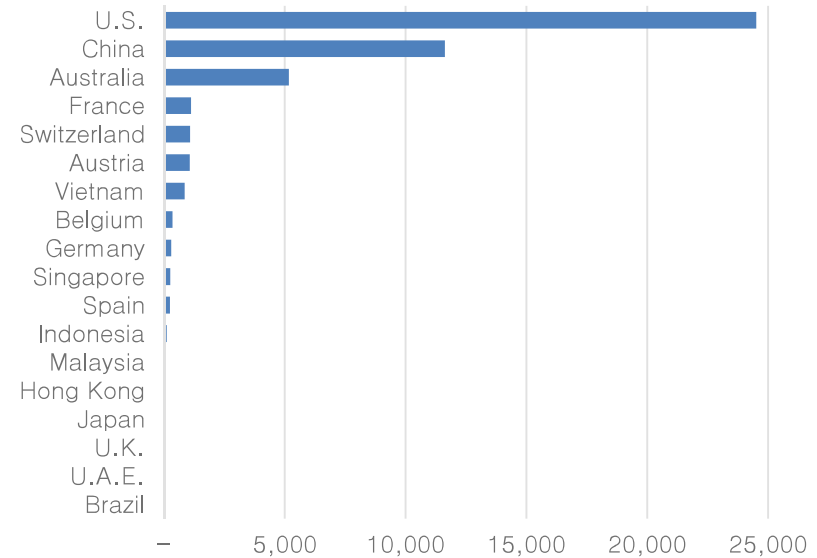
- 미국 및 중국 다음으로 거래건수는 아시아, 거래규모는 호주 및 유럽이 높은 비중 차지

In-Out 딜 피인수기업 국적별
거래건수 비중(2015년)



In-Out 딜 피인수기업 국적별
거래규모(2015년)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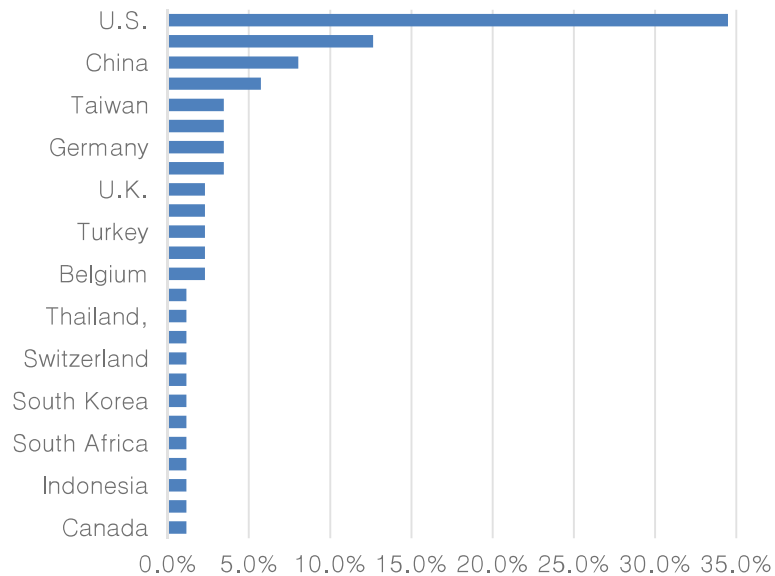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국경간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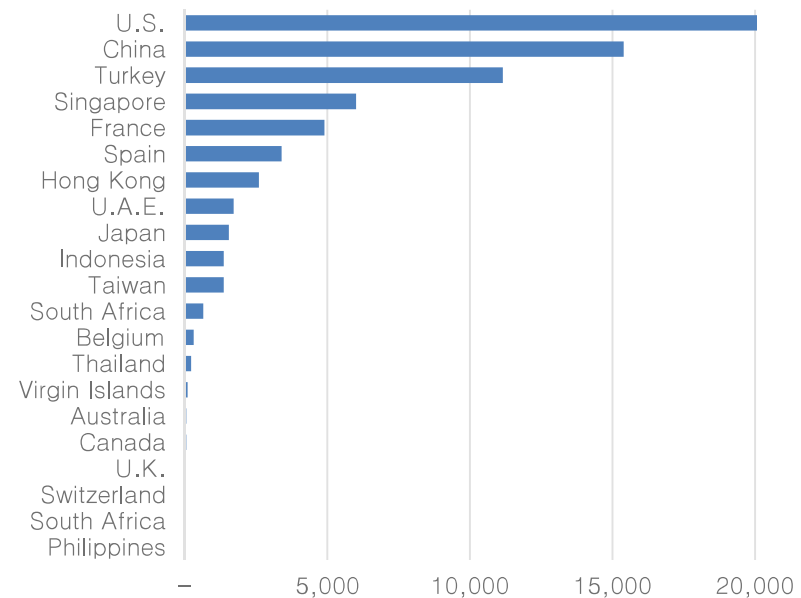
- ❖ 국내기업의 M&A는 미국 및 중국 기업에 의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일본은 최근 감소

Out-In 딜 인수기업 국적별
거래건수 비중(2015년)



Out-In 딜 인수기업 국적별
거래규모(2015년)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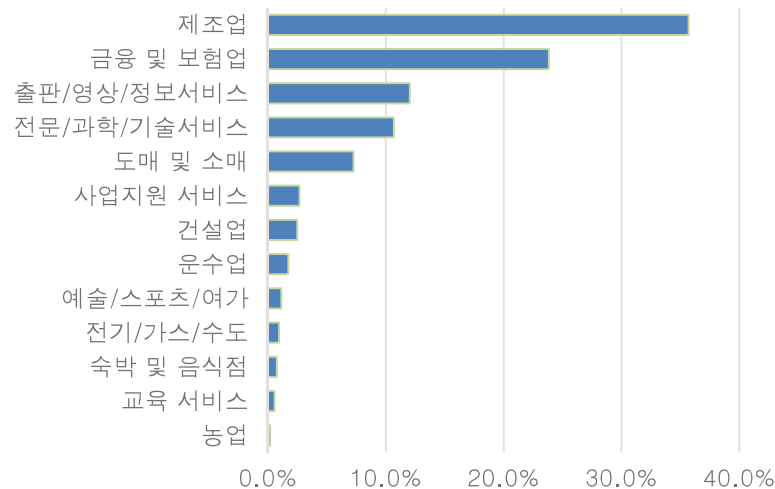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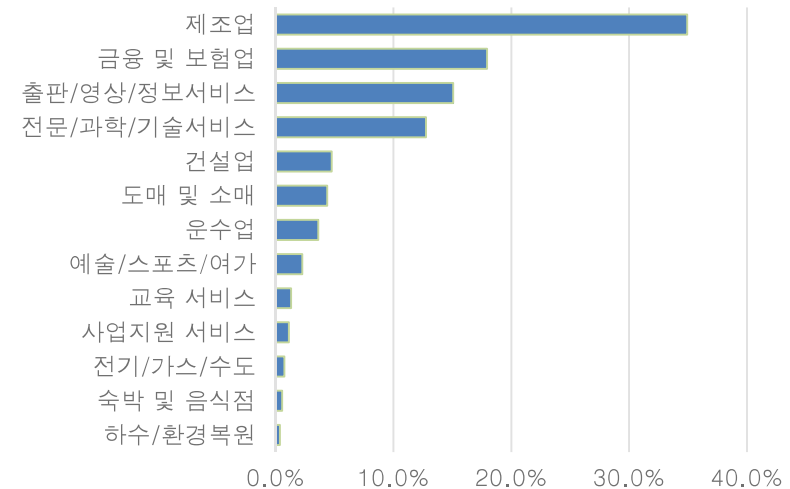
산업 특징

- ❖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 과학·기술서비스가 인수 및 피인수 기업 업종에서 각각 82.3%, 80.7%를 차지
 - 인수기업 업종: 제조업(35.7%), 금융 및 보험업(23.9%)
 - 피인수기업 업종: 제조업(34.9%), 금융 및 보험업(17.9%)

인수기업 업종 비중(2015년)



피인수기업 업종 비중(2015년)



자료: Bloomberg

산업 특징

❖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 내에서의 M&A 딜 건수가 가장 많으며, 두 업종 간의 M&A 비중도 높음

- 업종 내 M&A 비중: 제조업(21.0%), 금융 및 보험업(7.4%)
- 업종 간 M&A 비중: 제조업 → 금융 및 보험업(4.6%), 금융 및 보험업 → 제조업(6.9%)

M&A 인수-피인수 기업 업종 비중(2015년)

		피인수(Target)기업 업종													
		농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하수/환경복원	건설업	도매 및 소매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	출판/영상/정보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교육 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인수기업 업종	농업	0.0%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0.2%	21.0%	0.0%	0.0%	1.1%	1.1%	0.2%	0.2%	2.9%	4.6%	3.8%	0.2%	0.0%	0.4%
	전기/가스/수도	0.0%	0.0%	0.4%	0.0%	0.0%	0.0%	0.0%	0.0%	0.0%	0.0%	0.4%	0.2%	0.0%	0.0%
	건설업	0.0%	0.0%	0.0%	0.0%	1.3%	0.0%	0.2%	0.0%	0.0%	0.6%	0.4%	0.0%	0.0%	0.0%
	도매 및 소매	0.0%	1.9%	0.0%	0.0%	0.2%	1.7%	0.4%	0.0%	1.3%	1.1%	0.6%	0.0%	0.0%	0.0%
	운수업	0.0%	0.0%	0.0%	0.0%	0.0%	0.0%	1.7%	0.0%	0.0%	0.0%	0.0%	0.0%	0.0%	0.0%
	숙박 및 음식점	0.0%	0.4%	0.0%	0.0%	0.0%	0.0%	0.0%	0.2%	0.0%	0.0%	0.0%	0.0%	0.0%	0.2%
	출판/영상/정보서비스	0.0%	2.3%	0.0%	0.0%	0.0%	0.4%	0.2%	0.0%	6.5%	1.3%	0.4%	0.0%	0.2%	0.8%
	금융 및 보험업	0.0%	6.9%	0.2%	0.4%	1.9%	0.6%	1.0%	0.2%	2.5%	7.4%	2.3%	0.0%	0.4%	0.2%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0%	1.9%	0.2%	0.0%	0.2%	0.6%	0.0%	0.0%	1.0%	2.3%	4.0%	0.2%	0.2%	0.2%
	사업지원 서비스	0.0%	0.4%	0.0%	0.0%	0.0%	0.0%	0.0%	0.0%	0.6%	0.4%	1.0%	0.4%	0.0%	0.0%
	교육 서비스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6%	0.0%
	예술/스포츠/여가	0.0%	0.0%	0.0%	0.0%	0.0%	0.0%	0.0%	0.0%	0.4%	0.0%	0.0%	0.2%	0.0%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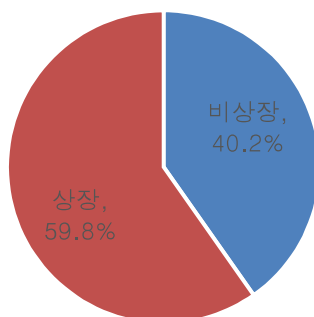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인수 · 피인수 기업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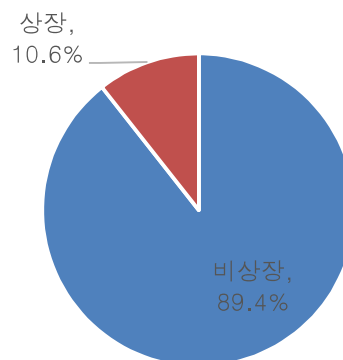
❖ 국내 M&A 딜에서 인수기업의 59.8%가 상장기업, 피인수기업의 89.4%가 비상장기업

- 비상장기업을 인수하는 M&A 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M&A 딜의 낮은 규모의 원인으로 작용
- 상장-상장 기업 간의 낮은 딜 비중은 국내 M&A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뒷받침

인수기업 유형(2015년)



피인수기업 유형(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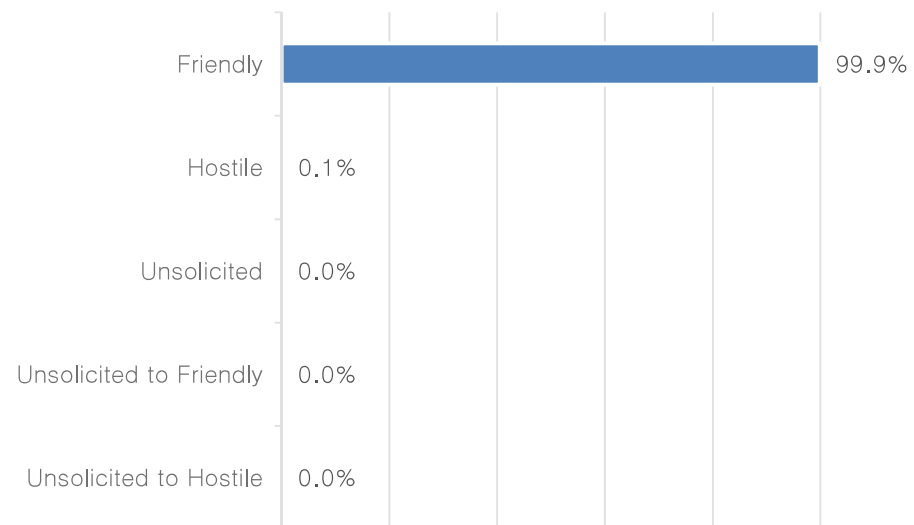
M&A 유형 (2015년)

		피인수기업	
		상장	비상장
인수기업	상장	4.4%	55.4%
	비상장	6.3%	34.0%

자료: Bloomberg

- ❖ 국내 시장에서 적대적 M&A는 극소수, 1970년대 이전 미국의 상황과 유사
 - 1974~1989년 4차 Merger Wave는 기업 구조조정과 LBO 및 적대적 M&A를 수반
 - 과도하게 낮은 적대적 M&A 비중은 비효율적 기업의 견제 메커니즘을 제한

매수 유형별 비중(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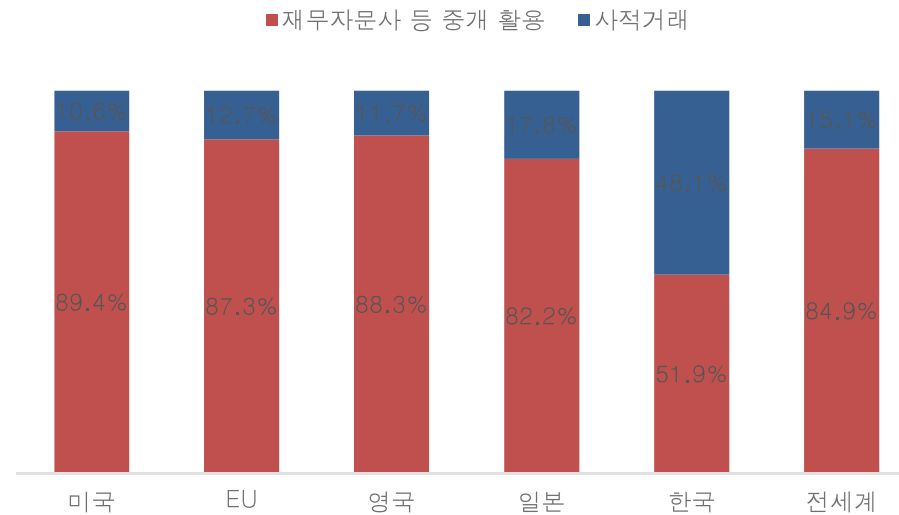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재무자문사 활용도

- ❖ 재무자문사(Financial Advisor)의 낮은 활용도는 보다 다양하고 전략적인 M&A 딜의 추진이 부족함을 방증
 - 재무자문사(Financial Advisor)의 활용도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기업이 자체적 M&A 대상 발굴, 협상 및 실행

주요국 M&A 재무자문사 활용 비중



자료: 황문성·강기우(2009) 재인용

감사합니다